

“2000년 역사 숨쉬는 나주로 관광 오세요”

‘나주시티투어’ 버스 23일부터 운행...2개 코스 격주제로 천연염색·고분탐험·황포돛배 등 이색 문화체험 코스 각광

나주시의 대표 여행 상품인 '나주시티투어(city-tour)'가 23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나주의 주요 관광지 및 명소 등을 둘러볼 수 있는 시티투어 버스로는 4000원이며, 오는 11월 23일까지 8개월 간(총 59회) 운영된다.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광주 유스퀘어 맞은편 시티투어 버스 승강장에서 출발해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시티투어는 2개 코스를 격주제로 운영한다.

제1코스는 유스퀘어 승강장에서 출발해 나주역-빛가람전망대-전남산림자원연구소-중식-나주 읍성(금성관, 목문화관, 목사내야)-황포돛배-국립나주박물관-고분군-나주역-유스퀘어 순이다.

제2코스는 유스퀘어 승강장-나주역-불

회사-중식-읍성권(1코스과 동일)-황포돛배-천연염색박물관 또는 북암리고분전시관(택1)-영상테마파크(드라마 주몽 촬영지)를 거쳐 나주역을 경유해 유스퀘어에 도착한다.

나주혁신도시의 광활한 전경을 한 눈에 담아 보고, 메타세콰이어 길을 거닐며 맑은 공기 속 자연이 주는 여유를 느끼고 싶다면 제1코스를, 천연염색(쪽), 마한시대 고분 탐험, 또는 사극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나주만의 이색적인 역사·문화체험을 즐기고 싶은 관광객들은 제2코스를 추천한다.

시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7월 12일-28일), 제5회 나주마한문화축제(10월 11일-13일), 국제농업박람회(10월 17일-27일) 개최에 따른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위해 해당 기간에는 시티투어 버스를 매일 운행할 계획이다.



나주시의 대표 여행 상품인 '나주시티투어(city-tour)'의 버스 운행이 23일부터 시작된다. 나주시티투어 버스. (나주시 제공)

이와 함께 시는 영산강 뱃길을 복원한 황포돛배 탐승 체험의 경우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강 수위저하로 기존 영산포 선착장에서 공산면 다아뜰 선착장으로 이전해 운영하고 있는데 다음 달 중 기존 선착장으로 복귀 운영할 방침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올해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로 광주와 전남이 외국

인 관광객으로 많이 붐빌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티투어를 통해 2000년의 유구한 역사가 살아 숨쉬는 문화·예술도시, 국가성장동력인 혁신도시가 공존하는 호남의 중심 나주를 많이 찾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on@

4월 벚꽃의 향연 속 달린다

제16회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내달 14일 개최

월명공원종합경기장 일원 선수·동호인 등 대거 출전

“4월 벚꽃의 향연 속을 달리며 역사와 문화를 느낀다.”

“제16회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가 다음달 14일 오전 8시 군산월명종합경기장에서 열린다.

군산시와 대한육상연맹 주최하는 이 대회는 2012년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으로부터 국제공인대회 승인을 받은 이후 8회째 개최되는 국제 마라톤대회다.

특히 2016년부터 여자 국제부 시상을 신설해 참가 규모와 내용 면에서 서울국제마라톤대회, 대구국제마라톤대회와 함께 국내 3대 메이저 마라톤대회로 성장했다.

대회는 엘리트 선수와 마라톤 동호

인들이 출전하는 42.195km 풀코스와 일반 동호인들이 출전하는 하프(21.097km), 단축(10km), 건강(5km) 코스로 이뤄진다.

특히 풀코스를 3시간 이내에 완주하면 SUB-3패 수여 및 명예의 전당에 등록하는 등 참가자들의 기록 경신에 대한 의지도 부추긴다.

참가 신청은 25일까지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김영란 군산시 체육진흥과장은 “대회의 코스는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군산의 신도시권과 근대역사문화가 살아 숨 쉬는 원도심을 지나 금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금강하굿둑, 철새조망대, 나포십자들녘을 돌아 월명종합경기장으로 되돌아오는 코스로 기록 경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마라톤러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왕인문화축제’ 사랑과 추억이 담긴 메시지 1년만에 전달

영암군, ‘타임머신 왕인우체통’ 엽서 2250통 발송

영암왕인문화축제장의 벚꽃향기가 담겨 있는 사랑과 추억의 메시지가 1년 만에 전달된다.

영암군은 2019영암왕인문화축제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난해 축제장에서 운영한 ‘타임머신 왕인우체통’ 엽서를 발송했다.

타임머신 왕인우체통은 2018영암왕인문화축제에서 추진된 프로그램 중 하나로

축제장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가족, 연인, 친구 등에 보내는 엽서를 작성해 2019년 축제 한 달 전에 수신인이 받아볼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그 동안 보관된 엽서는 2250여 통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왕인우체통의 엽서가 지난해 축제의 향수와 올 축제의 기대감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올 영암왕인문화축제에 지난해처럼 ‘타임머

신 왕인우체통’을 운영해 관광객들에게 소중한 추억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9 영암왕인문화축제’는 4월4일부터 7일까지 왕인박사 유적지 일원에서 열린다. 축제는 ‘왕인박사 일본 가오’ 퍼레이드와 개막행사 및 100리 벚꽃 감상 콘서트 등 관광객 중심의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 확충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춘향제 준비 상황 점검

남원시, 제전위원 보고회

춘향제전위원회는 최근 남원시청 회의실에서 ‘제89회 춘향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올해 춘향제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1차 보고회에서는 안숙선 위원장을 중심으로 행사 담당자들과 제전위원 등 60여명이 참석해 행사 종목별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이들은 축제의 전반적인 흐름과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행사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올해 춘향제는 ‘광한춘몽(廣寒春夢) - 사랑에 빠지다’는 주제로 5월 8일부터 12일까지 광한루와 요천 일원에서 펼쳐진다.

위원회는 흥겨운 공연과 다양한 프로그램,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각종 부대시설 등을 준비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남원사랑 상품권’ 발행에 맞춰 춘향제 기간 중 행사관계자에게 지급되던 식권과 행사참여자 실비보상금을 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한루각(보물 281호)에서 듣는 수준 높은 우리소리 ‘the광한루’와 명인명장이 펼치는 국악대향연과 함께 국립민속국악원이 함께하는 개막공연 등 수준 높은 공연도 예고하고 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협력단지 추진

전북도 등 15개 기관·민간 공동 2530억원 투자

새만금에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수산식품 수출가공 협력단지(클러스터)가 추진된다.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군산시, 선진수산영어법인을 비롯한 15개 기관과 투자기업 등은 최근 군산시청에서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사업’ 협약을 했다. <사진>

이 사업은 2021~2025년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 부지(26만6000㎡)에 2530억원을 들여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곳에 산학연구센터, 수출기

업센터, 전시홍보관, 냉동·냉장창고, 정수공급시설, 오·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민간기업 50여곳은 마른김, 조미김, 김 스낵 등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을 가공 생산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수산식품 클러스터가 1000여명 고용창출과 3000억원의 수산가공품 부가가치를 낼 것으로 전망한다”며 “새만금 조기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나눔연수원 완공

고흥군 59억 투입 27일 개관식...김영록 전남지사 등 참석

고흥군은 27일 오전 10시30분 도양읍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나눔연수원에서 개관식을 한다고 밝혔다.

2017년 10월 착공한 나눔연수원은 59억원이 투입됐으며 최근 완공됐다.

강의실·생활관·식당·마리안느·마가렛 전사관 등을 갖췄고, 전사관 2층에는 녹동향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카페테리아도 들어섰다.

개관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황주홍 의원, 장석웅 전남도교육감과 군민 300여명이 참석하며 기념식과 축하공연이 열린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

본명이 마리안느 스토거(Marianne Stoeger·85)와 마가렛 피사렉(Margareth Pissarek·84)인 두 간호사는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1962년과 1966년 한국 땅을 밟아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을 위해 봉사했다.

한 편의 보수도 없이 빈손으로 살다가 고흥에 활동이 여의치 않자 2005년 11월 21일 편지 한 장만을 남긴 채 소록도를 홀연히 떠나 귀감이 되고 있다.

항만시설·공사현장 안전점검 목표해수청, 봄철 해빙기 대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장귀표)은 봄철 해빙기를 대비해 항만시설 및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29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목표청 관내 항만시설물(계류시설, 부잔교시설 등) 97개소와 건설공사현장 1개소 등 총 98개소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시설물의 노후 현황과 건설공사현장 위험요소를 사전에 찾아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추가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목포=김준석 기자 kjs0533@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나방** Naver 공식 블로그에서 구독하세요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사무실 전용 급매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현대극장 바로 옆)
- 20층중 3층 302호, 38평(전용 약 23평)
- 하천방향, 전체 울수리, 사무실 전용
- 관리비 저렴, 주차편리, 대출 3천만원 가능
- 보5백만원에 월60만원에 임대가능
- 시세 - 1억 2000만원 정도
- 급매 - 7500만원(일시불)
- 문의. 010-6834-7400